

횡격막 허니아 교정 8례

장병준, 변예은, 채호철, 이선태, 권오경, 김완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외과학

Introduction: 외상성 횡격막 허니아는 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다. 외상성 횡격막 허니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호흡장애 및 저혈량성 shock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다. 적절한 환기기능의 회복은 수술적 교정을 통하여 횡격막을 원래모습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술적 교정의 시간이 중요하다.

Materials and methods: 본원에 횡격막 허니아를 의심하여 8증례가 내원하였다. 병력청취, 신체검사 및 방사선 검사결과 이 중 5증례는 교통사고, 2증례는 교상으로 인한 외상성 횡격막 허니아로 진단되었으며, 1증례는 고양이로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천성 횡격막 허니아로 진단되었다. 외상성 횡격막 허니아 7증례 모두에서 호흡곤란, 빈호흡,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으며, 침울, 운동기피, 점막 창백 등의 임상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선천성 횡격막 허니아의 1증례의 경우 호흡곤란 등의 횡격막 허니아와 관련된 증상은 없었으나 식욕저하로 내원하였다. 8증례 모두 횡격막 허니아를 진단 후 수술적 교정을 하였다.

Results: 이 중 내원 후 12시간이상 안정화 및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진 후 수술한 7증례 중 5증례에서는 술 후 기흉, 혈흉, 흉수, 폐부종 등의 복합증 없이 안전하게 교정되었고 1례는 수술 중, 1례는 술 후 폐사하였다. 내원 후 8시간이내 수술한 1증례는 술 후 24시간이내 폐사하였다.

Clinical relevance: 외상성 횡격막 허니아의 성공적인 처치를 위해서는 주의 깊은 환측의 평가와 동반된 손상의 적절한 처치, 그리고 수술 전 효과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Corresponding author: whkim@snu.ac.kr